

군산대학교 편입학 합격 수기

경영학과 권○○

저는 군산대학교에 편입하기 전 은행원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 다닐 때에는 이렇다 할 정확한 꿈이 없이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갔었기 때문에 성적도 좋지 않았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다 와서는 꿈을 찾아보기 위해서 경찰 공무원도 도전해보고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적성에 맞다는 걸 깨달았고 그런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때쯤 언제 한 번 음식점 알바를 했을 때였는데요. 근처 은행에서 일하시는 은행원분들이 식사하러 오셨다가 저를 보고 자네는 인상도 좋고 말도 예쁘게 잘하니까 은행원을 해보는 건 어떨겠나? 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행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은행원에 대해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봤더니 어느새 제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고 은행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은행원과 관련된 학과인 경영학과로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입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군산대학교에 편입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항상 학비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학점이 3.0만 넘으면 성적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또한 국가장학금을 최대한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해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원이 되려면 NCS나 면접을 준비하는 데에 정보도 필요하고 연습도 혼자 하기엔 힘들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은행이나 공기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NCS를 잘 풀 수 있는 강의나 면접 스킬 강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점을 얻어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서 항상 학생들의 취업에 관심을 두시고 한 학기에 두 번씩 상담도 해주시면서 조언 너무 잘해주시고 강의 알차고 재밌게 해주셔서 학교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산대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절대 후회 없으실 거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군산대 오셔서 같이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